교회소식

- 교우협력부: 2019 가족수련회
 - 일시: 9월 7일(토) ~ 8일(주일)
 - 장소: 라마나욧 수양관 (Ramah Naioth Prayer House) 2 Mud Pond Trail N, Franklin, NJ 07416
 - 참석 가능 인원 파악이 필요하오니,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우협력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 개강: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 창세기 성경공부: 토요일 아침 7:30-9:30
 - 풍성한 생명: 목요일 아침 10:00-12:00
- 뉴욕주는교회 선교 디너부페 (도미니카 단기선교 (7/21-27) 후원)
 - 일시: 오늘 오후 5-8시
 - 장소: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Youth Group
 - There will be a **Youth Group Parents meeting next week** (7/14) on Sunday during lunch time.
 - The meeting will provide updates, discuss an important issue, and provide information to parents of new youth group students.
 - We are requesting the presence of every parent of Youth Group Students.

섬기는 사람들

7월 안내: 임은도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이효정 집사 (시 82)

이번 주 친교: BBO

다음 주 친교: 김태환 집사, 김미섭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9권 26호 2019년 7월 7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주일 예배 12pi 금요 기도회 8pm	m / Sanctuary m / 본당 / 본당 / 본당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12pm / 유치부실 12pm / 유년부실 12pm / 소예배실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수 8pm / 2층 친교실

풍성한 생명 목 10am / 2층 친교실

창세기

창세기

토 7:30am / 소회의실

새가족 모임

금 8pm / 소예배실

가족 모임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English Service

	English Service	
<10am>		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All Who Are Thirsty"	Together
★ Call to Worship		Together
★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		9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Acts 15:5-11	Pastor Kim
	"From Private to Public: Declare!"	
Intercessory Prayer		Together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 Benediction		Rev. Lee
	<u>주일 예배</u>	
<오후12시> ✔인레차소		인도자: 이민영 목사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다함께
Worship & Praise		티쉬께
★신앙고맥 Apostle's Creed		나암세
•	413장(통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다함께
Hymn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	ıy
	시 30	이현주 집사
Prayer	Psalm 30	ulat #LOFEII
산앙 Anthem	"찬송하게 하시네"	Sekwang Choir
봉헌기도		_ 인도자
Offering Prayer		
	이사야 40:6-8; 66:22-23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40:6-8; 66:22-23	011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r	ncements	인도사
0		이민영 목사
Sermon	3E 1 1-1-1	120 71
	79장(통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Hymn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01011 ZVIVO (C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이사야 40:1-5

"너희는 위로하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범죄한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명령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정다이" 위로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호와께 벌을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됐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노역을 치르면, 얼마나 벌을 받으면 다 갚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이상은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은 자기 백성이 포로 생활 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겨도 다시 돌아간다면, 용서해도 다시 범죄한다면 그 긍휼은 부질없고 용서는 불의합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긍휼이 아니고 불의한 용서가 아닌 것은 예수께서 정말로 노역의 때를 다 치르셨고 정말로 벌을 배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치를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아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소용없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이 효력이 있고, 용서가 의롭습니다. 위로하라는 명령이 빈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한적입니까? 위로하려다 오히려 실망하고 미워합니다. 해도 소용없으니 아예 그만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용서를 의지하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평탄케 하라"는 명령은 일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강대국 제왕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시는 그 길을 제국의 황제보고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세계사도, 영적인 세력들도, 자연 만물도 명령하여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길만 터줄 뿐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막을 자가 누구입니까?

문제가 없는 길, 평탄에 보이는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길입니다. 주의 뜻을 물을 때 문제 없을 길, 잘 될 길을 묻지 맙시다. 주님께서 가실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대개 그 길을 하나님이 복주시지만,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갈 때 승리하고 평안합니다. 잘 되는 길만 묻다가는 첫번째 장애물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뜻이 아닌가보다 하고 후회합니니다. 그러나 주님 가시는 길 나도 가면 세계사의 위기도, 산과 골짜기도 그 길을 막지 못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에, 우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주님의 길을 가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합시다.

Memo			
I Wiento			